

“박근혜 퇴진 끝이 아니다…촛불의 목표는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

금남로 6차 촛불대회…1987년 DJ 환영 30만 이후 최대

박근혜·부역자·재벌 감옥 등장…“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박근혜 퇴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역자 처벌하고 촛불이 원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하라.”

지난 3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제 6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에서 ‘부역자 처벌과 촛불 민심이 담긴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주말 저녁 금남로를 가득 메운 15만개(경찰 추산 2만)의 ‘촛불’은 사회자의 선창을 따라 “부역자 처벌”, “재벌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광장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하라”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지난 1987년 ‘6월 항쟁’ 승리로 자유의 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환영하려고 금남로에 모여든 30만 인파 이후 가장 많은 참여자가 모여들었다고 선언하며 “촛불의 힘을 탄핵 이후까지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6차 촛불집회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박근혜와 부역자들이 들어 가야 할’ 쇠창살 감옥의 등장이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촛불집회 시작과 동시에 무대 앞에 손수 만든 가로 3m, 세로 2m짜리 쇠창살 감옥을 선보였다. 시민이 분장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삼성·SK·롯데 등 재벌기업이 사회자 지시에 따라 비좁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선 시민들의 환호와 아우로 금남로가 들쭉거렸다.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당장 감옥으로’라는 퍼포먼스 이름처럼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끝이 아니라 국정 농단 방조 의혹을 사는 청와대 전 고위인사, 재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곧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오후 5시에는 촛불이 꿈꾸는 나라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발언을 자유롭게 듣는 만민 공동회가 열렸다.

광주 동구 학운동에서 초등학교생 아들과 함께 온 시민은 “아들에게 박근혜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려고 현장에 데려왔다”고 외쳤다. 한 80대 할머니는 “사람이면 가식이 없어야한다, 박근혜처럼 가식이 많은 사람은 처음 봤다. 세월호때 가슴 아픈 척, 항상 사심 없이 국민만 생각하는 척,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선 슬픈 척… 이제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대통령의 가식에 속지않는다. 안 속아”라고 소리쳐 큰 호응을 얻었다.

15만명의 참가자들은 집회 중간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전가, 자녀에게, 아침이슬, 하야가, 행복의 나라 등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지루할 틈 없이 행사를 이어갔다.

집회 시작부터 촛불행진을 끝으로 시위가 마무리된 밤 9시까지 옛 전남도청 앞~금남공원 금남로 6개 차선과 인도는 15만명의 시민들로 한 순간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 수는 지난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돼 광주를 방문할 당시 금남로에 모인 30만 인파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1991년 4월 ‘고강경대열사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 도중 ‘2만학우여 단결하라! 미국을 반대한다. 노태우정권 퇴진하라!’를 외치며 분신했던 박승희 열사의 금남로 노제 참여자 10만명,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촉구하며 금남로에서 열렸던 촛불시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로 거대한 파도를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일상서 들불 되길”

금남로 집회 사회자 백금렬씨

구수한 입담·거침없는 비판
세월호 집회 등 사회 도맡아
“차량에 퇴진 스티커 붙이자”

“광주 시민과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이 주말 집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활활 타오르길 희망합니다.”

지난 3일 광주 금남로에서 만난 광주 시국촛불대회 사회자 백금렬(45)씨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는 “시민들이 매주 집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집회도 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개개인의 관심은 부족할 것 같다”며 “자동차나 가방, 옷 등에 ‘박근혜 퇴진’ 플래카드나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 운동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 주월중학교 한문 교사인 그는 최근 유명세를 치르는 중이다. 매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사회자로 나선 이후 여기저기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백씨는 구수한 입담과 박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무대 위에서 ‘기특한’ 학생들에게 용돈을 쥐여주는 행동 등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백씨는 ‘무거울 수 있는 촛불집회 분위기를 축제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을 갖고 매주 무대에 오르고 있다. 그는 “예전 시민 혁명처럼 죽기 살기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 박근혜 때문에 생겨나는 ‘열

불’을 해소하려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촛불잔치, 파티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광주 시민에게는 친숙한 사람이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지역 방송의 국악 프로그램인 ‘열씨구 학당’에 출연, 얼굴을 알렸다. 또 지난 2008년 광주에서 열린 광주병치료를 비롯해 세월호 추모 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백씨는 “여러 집회 사회를 진행한 경험에 있어서 광주시국촛불대회에 대한 큰 부담은 없지만 분위기가 처지거나 호응이 부족하면 내 탓인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고 걱정했다.

그는 이어 “벌써 6번째 집회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이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촛불이 사그라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민주대성회’ 햇불 전국서 활활

광화문 416개 햇불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

대구·울산…순천·목포 등 전남 17곳서도 등장

지난달 19일, 5·18 이후 36년 만에 재현된 광주 금남로 ‘민주대성회’에서 시작된 햇불이 14일 만에 청와대 코앞까지 번졌다.

“바람불면 촛불은 꺼진다”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망언을 비롯하기도 하듯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은 햇불이 돼 서울 도심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 6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햇불이 등장했다.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된 이날 시위대는 416개의 햇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했다. 맨 앞줄에는 자식을 진도 앞바다에서 잃은 세월호 유족이 섰다.

햇불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이었다. 1980년 금남로 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대성회 당시 시민들이 햇불을 들고 ‘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다면, 이날 서울에서 타오른 햇불엔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배일에 싸인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겼다.

대구와 울산에서도 지난 3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햇불이 등장했고, 순천과 여수, 목포 등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서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시민들이 햇불을 들고 행진했다.

/김형호기자 khh@

촛불집회 참가자 6차까지 연인원 641만명

광주·전남 40만 육박

지난 3일 지방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주디스타와 백화점 앞 중앙도로에는 주최(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본부) 추산 시민 20만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부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문헌교차로까지 3km 구간을 행진하면서 ‘하야송’을 합창하거나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대구에서는 중구 중앙내거리~공평네

거리에서 대구비상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시국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8천명)이 참가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후 반씩 나눠 각각 수성교, 동신교를 지나 벌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사까지 3.5km, 4.4km 구간에서 행진을 벌였다.

대전에서도 서구 은하수내거리 둔산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만명(경찰 추산 8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대회가 개최됐다.

오후 2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촛불홍

보단’이 대전 시내를 돌며 시민을 상대로 박 대통령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다.

세종시 호수공원 무대섬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세종비상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대통령기록관 앞 박 대통령 친필 표지석 철거 퍼포먼스를 하고서 ‘새누리당 해체하라’란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 세종시당까지 이동했다.

한편 여섯 차례 촛불집회에 전국에서 연인원 600만명(주최 측 추산) 이상이 참여한 진기록을 세웠다. 단일 집회 기준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연인원으로도 1987

년 6월 항쟁(연인원 300만~500만명 추정)을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차 촛불집회부터 이번 6차 촛불집회까지 6차례 시위에 참가한 연인원은 서울 503만명, 광주·전남을 포함한 지방 138만명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약 641만명이다. 6차 촛불집회까지 광주는 31만5500여명, 전남은 6만 5000여명 등 총 38만여명이 참가했다.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인 때는 이번 6차 촛불집회로 서울에서만 170만명이 거리로 나왔다. 서울 이외 지방 참가자 수는 62만 명이라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 (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병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병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삼백배(뽕나무뿌리 껍질)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9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